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나는 어떤 다스림을 ...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민족과 인종을 한데 모으기 위해 가르치고 통치하며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왕이란 말은 오늘날 유행에 뒤떨어진 옛 시대의 말 같지만, 우리는 일상생활 안에서 각자의 왕(주인으로, 우선적으로)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언자들이 말하는 하느님이 아닌 ‘거짓 우상’으로 권력이나 야심, 재산, 쾌락, 성욕 혹은 논쟁의 승리감, 자기 성취욕 등으로 포장되어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성서는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맘몬 중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은 자아를 망각하지만, 거짓 자아에 대한 사랑은 하느님을 망각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각자의 삶, 일체의 언동 밑바닥에는 결국 하느님의 초대에 “예”라고 답하거나 “아니오.”라고 뒤돌아서며 귀를 막은 데서 각자가 받들어 섬기는 임금의 정체가 확연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의 심문에 예수께서는 “내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정체는 무엇이며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되 다만 그 존재 방식과 법도를 이 세상의 왕국과 달리하는 왕국입니다. 세상의 왕국과 본질을 달리하는, 그리고 존재방식과 법도를 달리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요한 18.36)나라이며, 경제적 수단이나 공격과 방어의 도구를 상비해 두어야 하는 어떤 정치적 구조나 조직체와 동일시 될 수 없는 나라이며, 진실과 진리가 통용되는 나라입니다. 진실과 진리를 증거하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며,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어 모인 나라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으뜸(王)으로 모시는 우리는 오늘 미사의 감사송에서 밝혀졌듯이 우리의 율법은 사랑의 계명이고, 목적은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있으며 이 나라의 특징은 정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생명의 나라, 진실이 통용되는 나라, 은총의 나라, 평화의 나라임을 명심합시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 때, 한 주간을 뒤로하고 새 주간을 맞이하기 전에, 한 달을, 그리고 한 해가 저물어 갈 때 지난날들을 뒤돌아보며 나와 주위 이웃들에게 잘잘못을 되짚어보고 반성하며 새해, 새날의 결심을 다짐합니다.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그리고 모시고 있는 우리 임금께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얼마만큼 왕으로 모시고 흠송하고 찬미하고 받들어 섬기는데 노력했으며, 또한 지금까지 그리스도 왕국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자 생활했는가를 깊이 돌아보도록 합시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자 시민권(세례성사)을 얻었고, 하느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방위군으로서(견진) 얼마만큼 외부의 도전에서, 그리고 내 자신이 그 나라의 시민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했는지, 자타가 공인하는 하느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왔는지 생각하고 반성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며 그 분을 맞으려 길을 재촉합시다.

모전동 본당 이준건 콜베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시기의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기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정치권력을 가지시고 백성을 억누르는 임금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며 백성을 섬기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스스로 낮추심으로써 높아진 것입니다. 우리도 작은이들 안에서 주님을 알아 뵈고 섬기기로 다짐하며 이 전례에 참례합시다.

입당성가 :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본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사랑하시는 성자를 온 누리의 임금으로 세우시어 만물을 새롭게 하셨으니, 모든 피조물이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섬기며, 끝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에제키엘 예언서 34장 11절-12절.15절-17절

안 내 : 에제키엘 예언자는 주님께서 모든 곳에서 내 양 떼를 구해내고 몸소 양 떼를 먹이고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할 것이라 전합니다.

묵 상 : 주님은 착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북돋아 주시고,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며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어 시비를 가리실 때를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화답송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2독서 : 코린토 1서 15장 20절-26절.28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인들에게 종말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 드리실 것이라고 전합니다.

묵 상 : 아담으로 인해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듯이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도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능이 그리스도께 굴복하여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실 때, 우리의 부활은 이루어집니다.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 25장 31절-46절

강 론 : '나는 어떤 다스림을...'(1-2쪽)

예물준비성가 : 215번 '영원하신 성부'

영성체성가 : 179번 '주의 사랑 전하리'

영성체 후 묵상

하느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침묵>

하느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가
나와 이웃과 세상 안에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침묵>

나 자신이 자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성찰해 봅니다.
그리고 잃었던 자비심을 회복하여
용서 할 수 있는 영혼이 되도록 청합시다.
작은 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자비심을 갖추는 데서 비롯됩니다.

공지사향

파견성가 :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 공소사목 성금

윤석도님	50,000원	남적공소	100,000원
정영화님	50,000원	상촌공소	10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9,79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 림

■ '새로 나는 성경공부' (역사서)

- 일시 및 장소 :
안동 - 12월 2일, 9일, 16일
교구청 1층 강당 (토요일 13:30-17:00)
- 함창 - 11월 27일, 12월 4일, 11일, 18일
함창 성당 소성당 (일요일 19:30-22:00)
- 강사 : 교구 성서사도직 담당 김 루치아나 수녀

■ 2017년 열린 성경 강좌 8

- 일시 : 12월 11일(월) 19: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준비물 : 신, 구약 성경
- 참가비 : 1인 2,000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본당 주임)

■ 공소 봉사자 연수

- 일시 : 12월 1일(금) 15:30 - 2일(토) 점심
- 장소 : 농은수련원
- 대상 : 공소회장단, 본당 공소부장, 공소사목 수녀, 공소 선교사 외 공소사목에 관심 있는 분
- 참가비 : 1인 25,000원
- 준비물 : 2017년 공소 활동사항, 2018년 공소 활동계획, 미사도구, 세면도구

■ 수취페 도미네 생활성가 대림피정

- 일시 : 12월 3일(주일) 19:30
- 장소 : 영덕 성당

■ 청소년 견진캠프

- 일시 : 2018년 1월 12일(금) 15:00
- 14일(주일) 17:00
- 장소 : 문경 정보촌 유스호스텔
- 대상 : 교구 내 중·고등부 견진대상자 (현 중1-고2)
- 참가비 : 1인 80,000원
- 신청 : 11월 30일(목)까지 신청마감 엄수

■ 교구 성령기도회

- 일시 : 11월 27일(주일) 20:30
- 장소 : 예천 성당
- 강사 : 정애경 마리비안네 수녀

■ 가톨릭농민회 선종회원 지도신부 합동위령미사

- 일시 : 11월 29일(수) 15: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접수 및 문의 : 054-855-0127

■ 2017년 레지오마리아에 평의회 간부 간담회

- 일시 : 12월 2일(토) 15:00 ~ 3일(주일) 14:00
- 장소 : 농은수련원
- 대상 : 각 평의회 4간부(Cu. 이상)
- 준비 : 활동수첩, 목주, 미사준비, 월례회의 준비, 각 평의회(각 Co. 직속 Cu) 2017년 결산서 및 2018년 계획서 40부 준비
- 신청 : 11월 27일(월)까지 레지아로 (숙박여부 표기하여 신청)
- 문의 : 장주현(프란치스코) 010-8851-4467

■ 청년연합회 합동미사 및 총회

- 일시 : 12월 2일(토) 16:30 ~ 20:00
- 장소 : 영주 휴천동 성당
- 준비물 : 미사 준비, 청년회 활동보고 및 활동예정 발표 준비
- 신청 : 11월 29일(수)까지 사목국

■ 갈전본당 성전건립기금 마련 메주 주문판매

- 교우들이 직접 농사지은 콩을 사용하여 전통방식으로 메주를 만듭니다. 교우들이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 문의 : 김선희 로사 010-4945-9804
임점녀 노엘라 010-3251-5052

■ 성골롬반회 창설 100주년 기념개막미사

- 일시 : 12월 2일(토) 14:00
- 장소 :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성당
- 주례 :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
- 문의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02-926-1217

■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설명회

- 일시 : 12월 2일(토) 14:00
- 대상 : 진학희망 학부모(초6, 중1)
- 문의 : 054-338-0530

■ 수도자들과 함께 하는 성탄 전례피정

- 일시 : 12월 23일(토) 16:00 - 25일(월) 13:30
- 장소 : 성 베네딕도 왜관 피정의 집
- 참가비 : 16만원
- 신청 및 문의 : 054-971-0722,
010-9877-4739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4)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 주님과 함께 지난 한 해도 잘 지내셨는지요?

성서주간을 맞아,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삶과 활동의 중심에 계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사랑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지난 1년 성서사도직 분야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지난해 ‘자비의 특별 희년’ 폐막에 즈음하여 “해마다 주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서 성경을 더욱 잘 알리고 더 널리 전파하는 노력을 쇄신할 수”(「자비와 비참」, 7항) 있는 ‘하느님 말씀의 날’(Day of the Word of God)을 제안하셨습니다.

베네딕도 16세 교황님도 2010년 “성경이 사목 전체를 감도하게 하는 ‘성경 사목’을 증대시킬 것”(「주님의 말씀」, 73항)을 권고하신 바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인 생활 전반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의 소중함을 의미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복음 선포자의 첫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선교 활동의 중심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노력은 곧 시들해지고 우리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 이상 확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확신과 열정과 신념과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설득하지 못합니다.”(「복음의 기쁨」, 266항)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에서 선교 열정이 생겨나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선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가톨릭교회 내 유일한 성서사도직 국제기구인 ‘가톨릭 성서 연합’(Catholic Biblical Federation)은 교황님의 ‘하느님 말씀의 날’(Day of the Word of God) 제안에 착안하여 ‘성경의 해’(Year of the Bible)를 희년으로 선포해 주실 것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희년 기간은 2019년 대림 제1주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이며, 준비 과정으로 ‘말씀과 삶’(Word and Life), ‘성경적인 삶의 활기’(Biblical Animation of the Life), ‘교회의 사목적 활동’(Pastoral

Activity of the Church)의 3가지 주제를 정하여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교회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성서주간에 3가지 주제를 차례로 실천하며 ‘성경의 해’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복음화의 원천입니다. “모든 복음화는 그 말씀에 기초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거행하고 증언합니다.”(「복음의 기쁨」, 174항)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화되지 않는다면 세상을 복음화하지 못합니다. 복음의 핵심에는 공동체 생활과 다른 이들에 대한 헌신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취하셨음을 믿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하느님 마음 안에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하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음을 믿는 것은 모든 인간을 고귀하게 드높이는 무한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강생이 형제자매들 안에서 영원히 지속되고 있음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이는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무한한 사랑과 자비에 대한 응답이며 말씀의 증거입니다.

성경 묵상과 실천으로 체험하는 주님과 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이웃을 향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이해하고 돕고 격려하는 공감, 인간의 모든 차원에 대한 관심과 선교 열정이 솟아납니다. 참다운 신앙은 결코 개인의 안락과 안전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세상을 향해 열린 대화로 복음의 가치를 전달하며 이 세상을 이전보다 나은 곳으로 가꾸려 노력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강생하신 곳이고 당신 생명을 바쳐 구원하신 거룩한 땅이며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입니다. (「복음의 기쁨」, 176-183항 참조)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도, 하나의 신앙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면 함께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말씀하시며 선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모든 일을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성경 묵상과 주님과 의 인격적인 만남이 기쁨의 샘이 되어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 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7년 11월 26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손삼석 주교



플빵에 관한 기억

박월수 아네스
(안동가톨릭문인회)

어릴 적 동네 초입에는 초가지붕이 나지막한 점방이 있었다. 얇은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면 뒷마루에는 알록달록한 과자가 가득했다. 일곱 살 초겨울 무렵이 되자 점방 귀통이에 국화빵들이 놓여졌다. 신기한 물건이 들어왔다는 소문은 동네 꼬맹이들에게로 삽시간에 번져갔다.

우르르 몰려갔을 땐 고운 매무새의 주인할머니가 햇살 좋은 마루 끝에 앉아 빵을 굽고 있었다. 기름솔로 문지른 후 양은주전자에 담긴 반죽을 붓고 팔소를 넣는 모습은 재미난 구경거리였다. 따로따로 뒤집어지는 빵틀 안에서 플빵은 노릇하게 구워져 나왔다. 미달이문 밖에 붙어 서서 눈을 반짝이며 지켜보노라니 입안에 저절로 침이 고였다.

점방 유리문 밖에서 저물도록 빵 굽는 냄새에 취해있던 중이었다. 눈앞에 그림자가 짙어지더니 불쾌한 얼굴의 아버지가 나타나셨다. “옛다. 플빵 사 묵거라.” 아무래도 꿈을 꾸는 게 분명했다. 여태 내 손에 돈을 쥐어주며 무얼 사 먹으라고 한 적이 없었다. 비틀거리듯 걷는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며 나는 그토록 먹고 싶던 국화빵을 사서 입 안에 넣었다. 세상에 없는 맛이였다. 지금껏 먹어 본 플빵 중에 그날 먹은 빵 만큼 맛있는 건 아직 없었다.

아버지는 세월이 준 선물 같은 흰 눈을 머리에 이고서도 언제나 여전하셨다. 다정함과는 척을 지고 완고함과는 이웃하신 듯 가족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으셨다. 출가한 고명딸 집에 어쩌다 들렀다가도 서둘러 일어나셨다. 좋아하는 소주 두어 잔에 무른 안주 한 점을 들고는 서둘러 털털거리는 자전거에 오르곤 하셨다.

그런 아버지가 어머니와 나란히 딸네 집에 두어 주 머무신 적이 있다.

“야야, 이적지 괴안타가 각중에 이기 무신 일인가 모리겠다. 너거 아버지가 송악한 암이라 카더라. 너무 늦어가 인자 우예 해 볼 수도 엄따 카더라.”

평생을 마당 있는 집에서 눈을 뜨고 새벽이면 당신의 논밭을 둘러보는 일로 기쁨을 누리던 아버지께서 우리 집엘 오셨다. 상자 같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은 고층 아파트에서 남은 생 얼마를 딸과 함께 지내기 위해 갑갑증도 견디기로 하신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아침이면 일터로 나가야해서 두 분과 오래 있어 드릴 수가 없었다. 특별하다 싶은 찬을 준비해서 상을 차려드리는 게 전부였다.

어느 밤 퇴근 무렵, 남편은 아파트 앞 봉어빵 손수레 앞에서 멈추어 섰다. 어른들 종일 심심했을 텐데 입이라도 다시면서 말씀 나누게 플빵을 사다 드리자고 했다. 남편의 말이 고마우면서도 썩 내키지는 않았다. 거리에 파는 밀가루음식이 아버지 병에 좋을 리 없을뿐더러 두 분은 평소애 주전부리를 꺼리셨다. 하지만 뜻밖에도 두 분은 사위가 사다드린 봉어빵을 참으로 탐스럽게 드셨다. “마뎛따. 참 다다.” 몇 번이고 그러셨다.

봉어빵이 나를 철들게 했다. 내 입에 맛있으면 부모님도 맛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그날 이후 온갖 먹을거리를 사다 나르고 수시로 늦은 밤찬을 주문했다. 그러나 모처럼의 효도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아버지의 병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더 이상 드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한 때문이었다. 내가 기억하는 가장 서러운 플빵은 그날 두 분과 함께 먹었던 봉어빵이다.

찬바람이 부는 이맘때 플빵 몇 봉지 사서 부모님을 찾아뵙는 일은 가장 작은 효도의 시작이 아닐까. 더 늦기 전에 말이다.